

# 나주혁신도시 열병합발전소 가동 언제쯤...

## 법원, 나주시 제기 '가동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 연료 반입·LNG 보일러로 운영 갈등 불거져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내 들어선 열병합발전소 가동 문제<광주일보 2월 28일>와 관련, 나주시가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향후 발전소 운영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나주시가 애초 협약과 다른 연료를 사용한다는 점을 들어 가동중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고 열병합발전소 사용 승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나주시가 어떤 입장을 보일 지 주목된다.

15일 지역 경제계와 광주지법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 21부(부장판사 박길성)는 나주시가 지난해 12월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발전소 가동금지 가처

분 신청'을 기각했다.

나주시는 애초 지난 2009년 체결한 '자원순환형 에너지도시 조성을 위한 협력 합의서'에 따라 발전소에 쓰일 고품질 연료를 나주·화순, 목포·신안, 순천·구례 지역에 서만 들여와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반면, 난방공사측은 "나주·목포·순천 권역에서 들여온 고품질연료만으로는 혁신도시 내 안정적으로 열 공급을 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나주시는 이 과정에서 광주에서 반입한 '비성형' 가연성 폐기물 고품질연료(SRF·Solid Refuse Fuel)를 이용한 발전소 시운전과 관련, 난방공사를 상대로 가동을 중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으

고 재판부는 나주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애초 협약과 다른 연료 반입과 관련, '합의서를 위반했다'는 나주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포괄적 환경권 및 환경상 위해 발생 여부'에 대한 나주시 입장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열병합발전소는 애초 계획대로라면 지난 8월 시운전을 시작, 12월 준공해 정상 가동에 들어가도록 했지만 협약과 다른 연료 반입 문제와 LNG 보일러만으로 운영할 것을 요구하는 지역민 민원이 제기되면서 갈등이 불거졌고 가동이 멈췄다.

이 때문에 장기간 '자원순환형 에너지도시' 조성을 위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멈춰선 열병합발전소 운영에 변화가 생길지 혁신도시 입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혁신도시 내 열병합발전소는 고품질연료를 활용, 전기와 열을 만들어 혁신도시에

공급하는 시설로, 지역의 생활폐기물을 자원화하고 버려지는 폐기물을 최소화하는 취지로 2700억원을 들여 건립했지만 나주시 등의 반대로 정상 가동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8월 시운전을 시작, 12월 준공해 정상 가동에 들어가 했지만 연료 반입 문제와 LNG 보일러만으로 운영할 것을 요구하는 나주 지역민 민원 등이 제기되면서 여태껏 멈춰선 상태다.

나주시는 이미 발전소 연료 변경과 관련,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를 받아야 하는 지 여부를 질의했다가 '변경 협의 대상이 아니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어 이번 법원 판단을 계기로 발전소 연료 변경을 이유로 가동을 제한하는 게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게 나주시 안팎의 분위기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 사학연금공단, 연금업무 역량강화 워크숍

사학연금공단(이사장 이종훈)은 최근 2박3일 일정으로 전북 남원 컨벤션센터에서 연금사업본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금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연금교육 워크숍(사진)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연금법령 개정 및 고객 니즈 다변화에 대응해 전문적인 연금지식을 체계적으로 함양시키기 위해 열렸다. 수준별 학습 등을 통해 연금법령과

기준 이해, 연금업무 현안 및 노하우 공유, 실무 활용도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이종훈 이사장은 "연금교육워크숍이 학습하는 조직문화 구축은 물론, 고객 니즈에 부응하는 고품질 연금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전문역량 강화를 통한 안정적 연금서비스로 교직원 행복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용기자 pboxer@

##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인터넷정보보호원으로 바뀐다

인터넷 정보보호 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명칭이 '한국인터넷정보보호원'으로 바뀔 전망이다.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역할과 책임(R&R·Role and Responsibility) 재정립 방안'에 따르면 과 기부는 산하 정보통신기술(CT) 공공기관의 명칭을 바꾸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누구나 각 기관의 고유 기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관명을 바꾼다는 것으로, 기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명칭은 '한국인터넷정보보호원'으로 바뀔 예정

이다.

또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의 명칭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 한국데이터진흥원(K-DATA)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기관별 핵심 미션을 설정하고, 미션에 맞지 않는 사업은 기관끼리 협의를 통해 조정한다는 내용도 이번 방안에 포함됐다.

아울러 각 기관은 '기관장 의견 간소화', '관용자랑 축소', '중이영수증 없애기' 등을 통해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업무 효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 중기 정보보호 컨설팅 지원사업 추진

### 한국인터넷진흥원

중소기업들의 정보보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 사업이 추진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원장 김석환)은 15일 '2018년도 중소기업 정보보호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KISA의 정보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침해사고 피해 경향이 있다고 답한 기업 중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 전체의 약 89%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보보호 전담조직(8.4%) 및 전담 인력(16.9%) 운영, 예산확보(46.6%) 등 정보보호 수준이 50인 이상(51.5%, 75%, 88.5%)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추진되는 '중소기업 정보보

호 컨설팅 지원 사업'은 네트워크·시스템·홈페이지 등 기업 내 ICT 인프라를 운영하는 중소기업 중 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정보보호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게 된다.

KISA는 대상 중소기업에 보안 현황·취약점 분석·모의해킹·정보보호 정책 및 기술진단 등 맞춤형 정보보호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 컨설팅 결과에 따른 보호대책 적용을 위한 보안 솔루션 구입비용의 일부를 기업당 최대 300만원까지 매칭 형태로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지원사업 신청은 온라인 또는 유선(02-405-6696)으로 가능하며 신청 자격 등 자세한 내용은 KISA 보호나라 누리집(http://www.krcer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 4차 산업혁명 선도

## 4개 핵심과제 추진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원장 서석진)은 15일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역할과 책임을 재정립하고 이행 강화를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진흥원은 'ICT 혁신성장 기반을 고도화하고, 세계 최고수준의 방송통신서비스 환경조성'을 미션으로 정립, '미래전파자원 공급', 'ICT 신성장 기반 확충', '방송통신융합서비스 활성화', '사회적가치 창출' 등 4개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또 ICT기반 기획기능 강화, 전파기술 전문성 제고, ICT 정책지원 기능 강화 등을 위해 기관의 핵심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전파방송분야에 대한 남북교류협력사업도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수평적 조직문화, 책임을 다하는 조직문화, 청렴한 조직문화를 3대 조직문화로 정착시키고,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기 위해 특목 신문고, 청렴담당관 및 청렴의 날(매월 19일) 운영, 인공지능(AI) 기반의 채용방식 도입, 전파측정 자동화 SW 개발, 전문직무군 지정 등 다양한 대책들을 시행해나갈 예정이다.

서석진 원장은 "방송통신전파 분야의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전문기관으로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소통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전KDN이 도입한 'CEO가 보내는 응원의 푸드트럭' 앞에서 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전KDN 제공>

## 한전KDN, 직원과 CEO간 소통 활성화 '응원의 푸드트럭' 운영

### '1대 1팀 매칭제' 운영도

한전KDN(사장 박성철)이 15일 소통의 기업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직원과 CEO간 소통 활성화를 위해 'CEO가 보내는 응원의 푸드트럭'을 운영한다. CEO와 메일을 주고받은 직원에게 CEO가 직접 작성한 응원의 메시지와 푸드트럭을 보낸다.

해당직원과 소속부서 전원에 걸쳐 격려와 간식을 제공하는 행사로 조직 내 소통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평소 접촉이 없는 부서간 팀단위 소통시간을 갖는 '1대 1팀 매칭제'도 운영한다. 무작위로 정해진 매칭표에 따라 점심 식사시간을 이용해 잘알지 못했던 타 부서 직원들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갖는다. 타부서의 업무를 이해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새로운 아이디어 도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전KDN 관계자는 "조직원 상호간의 이해를 돕고, 협업을 유도하는데 그치지 않고 일터에서의 작은 행복까지 담은 이번 기업문화 프로그램이 소통의 기업문화 확산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 시행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착한보청기협동조합**

#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산수오거리지점  
**062) 362-3336**    돌고개지점

#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 시술 1만여명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아파트 상가2층  
**062 673 5858(모발모발)**